

## 출판계 움직임

### '도서잡지의 사회적 책임' 세미나

한국도서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鄭元植)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문화와 도서잡지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하는 도서잡지윤리 세미나를 5월10일 오후2시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갖는다.

이 세미나에서는 손봉호교수(서울대)의 주제발표에 이어 「청소년도서잡지의 문제점과 개선책」(차경수·서울대 교수), 「대중오락지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강성위·외국어대 교수) 등 발제강연과 토론이 있다.

### 출판인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재단법인 한국출판금고(이사장 정진숙)와 출판협회는 출판전문인 해외연수사업계획에 따라 88년도 해외연수 대상자를 선발한다.

이번 연수는 영국 '북 하우스 트레이닝 센터'(BHTC)에서 오는 6월25일부터 7월25일까지 1개월간 실시된다. 대상인원은 4명, 신청마감은 5월10일까지. 연수자에게는 1인당 400만원 한도에서 항공료, 체재비, 수강료 등을 지원한다.

### '청소년문예지침' 발간희망사 추천

문예진흥원은 84년 이후 지금까지 발간된 청소년대상 예술분야 지침서 중 수요가 많은 분야를 선정, 재발간 배포할 계획 아래, 참여할 출판사의 추천을 出協에 의뢰했다.

대상은 연극, 무용, 합창, 인형극, 사진 분야로서 5권 내외를 발간할 계획인데, 재발간도서 중 각 1,000부씩을 문예진흥원이 구입한다. 신청은 5월10일까지.

### 金星出版社長에 李輔煥씨

(주) 금성출판사와 금성교과서(주)는 4월13일 각각 주주총회를 열고 金洛駿사장을 대표이사 회장에 선임하는 한편 금성출판사 사장에 李輔煥전무, 금성교과서 사장에 林性元상무를 각각 선임했다.

# “대학에 ‘출판학과’ 신설을”

## 出協, 출판전문인 양성 위해 문교당국에 건의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권병일)는 정보사회에서의 출판의 중요성에 비추어 출판전문인을 양성할 '출판학과'를 국립서울대학교에 우선적으로 신설하고, 그밖의 4년제 시립대학에도 빠른 시일내에 설치하도록 유도해 달라고 4월27일 문교부장관에게 건의했다.

건의문은 책의 제작, 평가, 생산, 판매, 소비 등 출판의 제과정에 관여하는 출판인은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투철한 직업의식과 문화의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현재 출판종사자의 교육수준은 대학졸업 이상이 79.3%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설적이 없는 출판사가 속출하고 혹은 상업주의 편향의 출판이 늘고 있는 것은 출판인들의 전문가의식과 문화의식이 결여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4년제 대학에는 출판학과가 없고 단지 출판 관련 학과인 신문방송학과, 도서관학과 등에 출판학 과목이 있으나 전체 전문과목 중 1~2개 과목을

차지하는데 불과하다. 이밖에 몇몇 특수대학원에 단기코스인 출판·편집강좌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는 출판사 종사자들을 위한 재교육·실무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어 전문가의 의식을 함양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동안 한양대, 단국대, 중앙대, 전주대 등에서 출판학과 신설을 당국에 요청해 왔으나 문교당국은 인가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신문화과나 도서관학과가 매년 증설되는 현상과 비교할 때, 시급히 실현돼야 할 과제라고 건의문은 지적했다.

외국의 경우, 출판학과가 설치돼 있는 4년제 대학이 많다. 미국의 오하이오주의 마리에타대학, 남부 다코타대학, 영국의 옥스퍼드-폴리테크닉대학, 독일의 마인츠대학, 중국의 復旦大學, 브라질의 상파울로대학, 인도의 델리대학 등에 정규 출판학과가 있으며, 대학원 수준으로는 영국의 리스대학, 브라질의 상파울로대학 등이 있다.

### 출판협동조합 30주년 기념식

한국출판협동조합(이사장 許昌成)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5월4일 오후5시 조출한 기념식을 가졌다.

### 컴퓨터 출판 워크샵

한국전자출판연구회(회장 김병희)는 '컴퓨터 출판시스템의 이해'를 내용으로 하는 기초과정 제1기 워크샵을 5월11일~12일 동연구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강사는 이기성씨(연구회 이사).

한편 동연구회는 제2회 연구발표회를 12일 오후 5시에 갖는다. 주제는 'PC입력데이터 변환프로그램의 개발과 실무에 관하여'. 강사는 이호열(감골사식 대표)·박종성(한국컴퓨터인쇄 이사) 양씨. 연락처는 353-9990.

### 書聯, 대형서점 공동운영키로

전국서적상조협연합회(회장 李秉仁)는 영등포 역전에 신축된 체신부 보험회관 지하1층 430평을 임대, 서점을 개설할 계획이다.

서련은 영등포지역 20여개 중소 서적상들의 공동출자(자본금 3억 5천만원)로 이 서점을 공동운영할 방침 아래 이미 지난 4월16일에 임대계약을 맺었는데, 5월중 개점을 목표로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주간「학생신문」6월1일 창간

학습자료 전문출판사인 진학개발교육회(대표 鄭光益)는 특수주간지 「주간 학생신문」을 4월8일자 로 문공부에 등록, 6월1일 창간을 목표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 '부산문고' 400평 개점

부산 남포동 6가에 대형서점 '부산문고'(대표 김진영)가 지난 4월9일 새로 문을 열었다.

자갈치 전철역 근처 신천지백화점 지하에 자리잡은 부산문고는 3개 매장에 연면적 400평. 이밖에 80평의 이벤트 홀을 마련, 교양강좌와 작가와의 만남 등 문화행사도 벌일 계획이다. 이로써 부산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아동도서 제작을 위한 일러스트레이션 워크샵'이 5월2일 출협 세미나실에서 개강됐다. 이날 개강식에서 유네스코 아시아문화센터(ACCU) 이사장 服部敏幸씨(일본講談社 회장)는 ACCU가 특히 힘을 쏟고 있는 분야는 '각국의 출판전문가 양성'과 '아동도서의 공동출판'이라고 밝혔다. 이번 워크샵에는 출판사 재직자 27명을 비롯, 미술대학생, 프리랜서 등 60명의 연수생이 참가했다. 워크샵은 13일까지 12일간 계속된다.



출협이 주최하는 '국제그림동화原畫展'이 5월4일~9일까지 롯데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이 전시회에는 국내 작가 34명의 작품 100점을 비롯, 일본의 노마쿠라루 입상작 등 모두 13개국 178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4일 오전 11시의 개막 테이프커팅에는 한국측에서 鄭鎮燾출판금고 이사장, 林仁圭출협고문, 權炳臺 출협회장, 李容權문예진흥원 사무총장, 조성욱 유네스코한국사무총장, 金教滿 서울대대교수, 장성원 롯데쇼핑 사장, 김영주 출판작가대표와 일본측에서 服部敏幸 ACCU회장 등 3명이 참가했다.

기존의 동보서적(200평), 영광도서(160평), 광복문고(200평)와 함께 100평 이상의 대형서점이 4개로 늘어났다.

### '한정동 이동문학상'에 조명제씨

「따오기」의 작가 韓晶東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한정동문학상' 제20회 수상자로 시인 조명제씨가 뽑혔다. 수상작은 「꽃씨를 심는 마음」.

수상자 조명제씨는 82년 「월간문학」 신인상으로 데뷔, 「갈숲의 노래」 「날고 싶어요」 등 2권의 동시집을 펴낸 바 있다. 현재 '씨레' 동인·부산 동성국민학교 교사. 시상식은 5월13일 오후6시반 부산 동성국교 강당에서.

### 馬山서 '수필집 1,000권 전시회'

경남 마산의 장서가 이승기씨(전 마산예총 사무국장)가 마련한 '수필집 1,000권 전시회'가 5월6일~8일 3일간 마산시 가야백화점에서 열린다.

### '技多利' 주소 이전

도서출판 技多利(대표 신동설)가 지난 4월28일 서울 성동구 구의동 257-103으로 이전했다. 전화는 444-1556~7.

### '무역경영사'도 옮겨

무역경영사(대표 金京善)는 지난 4월30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364의 38 東京빌딩 2층으로 사무실을 확장이전했다. 전화는 335-1171~4.